생각 믿음에서 마음 믿음으로

(신명기 29:1~29)

1.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 너희가 이 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각 믿음에서 마음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생각 믿음에서 마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고민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으로 배 부른다.’는 것이 왜 경험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 산에서의 베드로의 경험은, 이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을 다 망각한 채 영화로우신 예수님 모습의 매력에 빠져서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현장에서 열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충만함의 상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러나 이것은 괴로워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리를 알면 당연한 결과로 나가고 있는 중간입니다. '신앙의 생리'란 생각 믿음에서 마음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믿음에서 마음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생각 믿음과 마음 믿음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생리를 잘 알게 되면 신앙이 훨씬 더 즐겁고 희망차고 해볼 만한 것이라는 의욕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되는지 한 번 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오늘의 언약으로 새롭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면 복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이유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언약의 내용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언약이 깨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다른 종교의 신이나 우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저 자식이 잘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자식을 신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면 돈을 신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신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이 들어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지킨다고 해도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지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을 모압 평지의 언약으로 재확인하십니다. 내용상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40년 전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거나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내산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사자들이 아니었던 자들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약의 당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약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고 귀중한 내용이 나옵니다. 40년 전의 언약을 새롭게 오늘의 언약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해어지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최근에 요단강

동편까지 진군을 해서 남 아모리와 북 아모리 족속과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회상하는데, 언약을 새롭게 제시하는 마당에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물을 다 모아서 선민들의 눈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는 선민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선민을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제시됩니다.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 등으로 증거 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살았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동안에, 너희는 광야 40년에 단 한 순간도 의식주를 위해 애쓴 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책임지실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모든 증거가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는 못 보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출애굽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직 지금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사건은 선민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이 있은 뒤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지 2000년 뒤에 살고 있지만 35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하시는데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목전에서 행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하셨고, 3절에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면서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풀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목전에서, 너희가 보았나니,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일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오늘날까지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고 하십니다. 두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체험했는데도 무엇을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으면서 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게 하셨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소리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깨닫는 마음'이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선 마음 안으로 모셔야 될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만큼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멋지고 중요한 가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매력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멋진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갖고 싶어 하는 것들보다 더 크게 보이는 상태로 한 마디로 하나님께 열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수백 번씩 불러도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 백억이 내 손에 쥐어진다는 상상을 하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율이 없는데 이게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마음의 체감상태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승진이 더 실감나게 좋고, 아이가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더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도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르며 좋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매력을 눈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 아무리 갖다 놓아도 내 마음에 들여놓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빨리 빼내야 하는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백번, 천 번을 불러도 마음에 체감이 되질 않는데 이게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매력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말과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헤드린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

라"고 강력하게 말할 때에 행4: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산헤드린공회원들의 윽박지르는 협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렸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니 그 소리를 먼저 듣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언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나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깨닫는 마음'은 이 세상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을 먼저 보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좇아가도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느껴지는 마음,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체감되는 상태가 언약 당사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러한 마음을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서도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사건은 증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지은 적도 없고 의식주를 위해 뛰어다닌 적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게 증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게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증거인데 아직 내 마음에는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증거, 의식주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증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도 돈이 좋게 느껴지고 아직도 건강이 좋게 느껴지고 아직도 승진을 바라는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체감되는 상태에서는 승진이 좋고 증거가 주어진 바로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증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나 전쟁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렬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관심거리인 의식주 문제와 전쟁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이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될 때에 성경에서 증거가 제시됩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짓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를 붙잡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불안하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는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믿는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 걱정거리에 매여 있지만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믿기 위해 제시된 증거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광야에서 선민의 의식주를 해결하셨으며,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보다 사랑하셨음을 생각으로 믿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복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매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믿게 하셨지, 마음으로 체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하나

님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돈이 있어야 배가 부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믿고 돈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의식주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추구할 때에 변화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나라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확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불상에 절을 할 사람이 누가 있고, 알라신을 운운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인도나 일본의 잡다한 신들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인도하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의 증거만이 제시되었고, 선민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걱정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생각으로 믿습니다. 돈이 걱정일 때에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것을 생각으로 믿습니다. 승진을 간절히 바랄 때에 직장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체결 당사자들이 이러한 생각의 믿음을 발동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몸짓으로 보시고 그 몸짓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직 체감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하신 모든 것을 생각으로 믿으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돌아서면 또 돈이 갖고 싶지만 또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당사자들이 행해야 될 모든 몸짓을 완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3: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대상들은 선민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나 광야의 역사 등의 증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속에 출애굽의 사랑, 광야생활 동안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책임지심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롬8: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마음이 끌려가고,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고 매력적인 것들에 마음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셨던 '그 하나님아버지만이 내게 최고'라는 것을 생각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는 생활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진행될 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당신의 매력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세상과의 갈등의 차원을 넘어가서 세상을 완전한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배설물'의 정의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배설물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끌어들이게 될 때에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게 느껴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매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들리고 이 상태까지 가는 것이 복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복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믿음을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번제에서 매일 '하나님으로 배 불러라,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늘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으로 절대 평강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매일 이 세상에서 헐떡거리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생각의 믿음을 발동하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에 40년 광야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포도원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밀농사 쌀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굴복하고 있는 의식주의 강렬한 관심거리와 중요한 문제의 상징인 전쟁은 때로는 승진이나 진학,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으로 믿기 위해서 증거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먹고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희망찬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으므로 생각의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데에까지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누가 외아들을 줍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이자 새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의식주와 같은 관심거리,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전쟁과도 같은 중요한 문제로서의 관심거리들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의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세상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관심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꿈과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마음,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매력이 보이는 마음,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듣게 되는 귀, 여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 대단한 본문 아닙니까? 이 말씀을 쓰신 모세와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앞에 우리 눈길을 붙잡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의 믿음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므로 기어코 마음의 믿음의 자리까지 날마다 더 풍성하게 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